포스트구조주의란 무엇인가?

김 영 한*

목 차

Ⅰ. 머리말
Ⅱ. 정의
Ⅲ. 구조주의의와 공통점
Ⅳ. 두 유형 - 텍스트 유형과 정치적 유형
Ⅴ. 특징
Ⅵ. 개혁신학적 비판
Ⅶ. 맺음말

Ⅰ. 머리말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 많은 경우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그리하여 양자 사이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글에서는 양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Ⅱ. 정 의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매던 새럽(Madan

* 본교 인문대 교수

Sarup) 같은 이론가는 이 두 개념을 거의 동의어나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다.[1] 그러나 양자는 구분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포스트구조주의 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후자는 개념적으로 전자에 귀속한다.

전자는 좁은 의미로는 문학을 비롯한 예술분야, 또는 해체주의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20세기 후반기의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정신(postmodernity)이라고 말한다. 후자는 철학이나 사회과학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크리스 위든(Chris Weedon)은 그녀의 저서 [페미니즘적 실천과 포스트구조주의 이론](Feminist Practice and Poststructuralist Theory)에서 후자를 다음같이 정의하고 있다. "'포스트구조주의'라는 용어는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다원적이다. 그것은 고정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데리다, 라깡, 크리스테바, 알튀세, 푸코의 저술에서 그리고 그 저술들을 통해 발전된 넓은 영역의 이론적 입장에 적용된다".[2]

Ⅲ. 구조주의의와 공통점

구조주의의 시작은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F. d. Saussure)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제네바 대학에서 행한 그의 강의록을 기초로 그의 제자들이 펴낸 저서 [일반 언어학 강의](A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에서 소쉬르는 언어의 추상적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구조주의는 언어와 텍스트만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까지 분석해 들어간다. 동화, 신화,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의상, 음식, 레슬링 경기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하였다.

구조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 결과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나 체계를 분석한다.

구조주의는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의 산물을 자족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구조를 가진 의미체계로 간주한다.

그런데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가 말하는 추상적 구조나 체계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제기한다. 문화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Levy-Strauss)나 문학이론가 바르트(Roland Barthes)는 모든 인류의 문화 구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호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믿었

1) Madan Sarup, An Introductory Guide to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1988). p. 118.

2) Chris Weedon, Feminist Practice and Poststructuralist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1987), p. 19.

다. 그러나 포스트구조주의는 이러한 구조주의가 주장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포스구조주의는 구조주의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3)]

첫째, 언어를 인간의 모든 행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와 같이 "언어의 제도적 성격"과 언어의 무한한 생산성을 인정한다.[4)]

언어의 제도적 성격이란 언어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유년시절부터 사회적으로 점차 습해나가는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언어의 무한한 생산성이란 데리다가 말하는 바 같이 의미작용을 무한히 가능하게 하는 언어의 특성을 말한다.

둘째, 인간행위에서 의미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와 같이 의미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다. 구조주의는 텍스트 의미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단지 텍스트의 구조에서 의미가 만들어 지는 과정에 관심을 표명한다.

셋째, 비역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양자는 텍스트를 벗어난 외적 역사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패턴을 인정하지 않는다. 역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단지 텍스트 안의 세계만을 말한다.

Ⅳ. 두 유형 - 텍스트 유형과 정치적 유형

포스트구조주의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텍스트 유형과 정치적 유형이다.[5)]

전자는 데리다와 그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해체주의자, 테일러(Mark Taylor) 등이며, 후자는 푸코(M. Foucault), 알튀세(Althusser)와 바흐친(Mikhail Bakhkin) 등이다. 전자는 텍스트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다루고 있고, 후자는 텍스트 밖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다루고 있다.

---

3)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현암사, 1994, 30-38쪽.

4) John Sturrock, " "Introduction", [Structuralism and Since]: From Levi-Strauss to Derrida, ed. John Sturrock (Oxford: Oxford Univ. Press, 1979), pp. 12-13.

5) 김욱동,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1991, 현암사, 22-30쪽.

텍스트 유형은 "텍스트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데리다의 말이 대표적이다.[6] 테일러는 데리다의 텍스트주의를 신학에 적용시켜 전통신학을 해체시키고 있다.[7]

정치적 유형은 텍스트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차원을 중요시한다. 니체가 [도덕 계보학]에서 현재를 과거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탈합법화한 것 처럼 푸코는 그의 저서들을 통하여 현재를 과거로부터 단절시킨다. 푸코는 목적론적 역사관을 부정한다. 푸코는 지식에 대한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부각시킨다. 그의 저서들 [광기와 문명](1961년), [병원의 탄생](1963년), [사물의 질서](1966년), [감시와 처벌](1975년), 그리고 [성의 역사](1976년)에서 여러형태의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고 변천해 왔는가 하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 여기서 푸코는 모든 지식이란 니체가 말한바 같이 권력의지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지식과 권력이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알튀세도 인간을 이데올로기의 하수인으로서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사회구조 안에서 각각 자리를 잡도록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도 푸코와 같이 인간의 지식이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바흐친의 대화주의 이론도 정치적 유형에 속한다.

바흐친은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나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탐구한다. 그는 형식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결합하고 있다. 그는 한편으로 문학텍스트의 언어적 구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그는 형식주의의 데두리에 서 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언어가 물질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그는 마르크스주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바흐친은 이 양자를 창조적으로 결합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는 언어를 계급투쟁의 장으로 보고 있다. 그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가 언어만큼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곳도 없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메타 언어학이다. 그는 텍스트가 형식주의자가 말하듯이 기교의 산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단순한 형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제조가 아니라 삶의 역동성 속에서 수행되는 창조의 산물로 본다. 이처럼 역사주의 유형은 텍스트를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도 텍스트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산물로 본다.

---

6) J.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Chakravorty Spivak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5), p. 158.

7) Mark C. Taylor, Erring, A Postmodern A/the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84, p.13.

V. 특 징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에서 나왔다. 구조와 체계를 부인하고 구조주의가 주장하는 이성중심적인 인식과 과학적 인식을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성과 언어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점에 있어서 포스트구조주의도 역시 구조주의의 테두리를 궁극적으로는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포스트구조주의라는 말을 부친다.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와는 달리 극단한 회의주의와 상대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8]

첫째, 언어의 지시적 기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인다. 구조주의는 언어가 지니고 있는 로고스성, 특히 기의(記意, signifie)를 강조함으로써 언어가 지니는 지시성과 논리성을 강조했다. 이데 반해서 포스트구조주의는 이러한 언어의 지시성과 고정성에 대하여 깊은 회의를 제기한다. 포스트구조주의는 언어의 표상화에 대해 회의하는 점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에 속한다.[9]

포스트구조주의자 데리다는 구조주의자 소쉬르의 언어학을 비판한다. 데리다는 소쉬르의 로고스중심주의를 비판하기 위하여 "차연"(差延, difference)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차연이란 공간적인 개념이 차이(差異)의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인 지연(遲延)의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개념은 언어가 지닌 비결정적이고 비종결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데리다는 그의 저서 [글쓰기와 차연](Writing and Difference)에서 언어 의미의 확정이란 의미의 산종(散種)때문에 불가능함을 말한다.

"초월적 기의의 부재로 말미암아 의미작용의 영역과 유희가 무한히 확장된다".[10]

푸코도 마찬가지로 데리다의 "차연"이나 "산종"이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담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언어란 추상적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개념 안에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언어의 의미는 표현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언어는 실

8)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현암사, 1994, 30-55쪽.

9) Roy Boyne/ Ali Rattansi, ed. Postmodernism and Society (London: Routledge, 1990), p. 12.

10) J. Derrida,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 in: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Alan Bas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8), p. 280

제세계를 지시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도 않는다고 본다.

둘째, 인간주체나 개별적인 자아에 대하여 깊은 회의를 갖는다. 구조주의는 데까르트가 발견한 주체보다도 구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따라서 구조는 주체와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갖기 보다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구조주의에서 표명된 주체에 대한 평가절하 내지 불신은 포스트구조주의에 이르러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가 제기한 데까르트의 주체에 대한 불신보다 극단한 회의를 제기한다. 여기서 "저자의 죽음" 내지 "주체의 죽음"이 언급된다.

낭만주의에서는 작품을 통해 저자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고자 했고 실재주의에서는 저자는 증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사람처럼 자연의 모습이란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포스트구조주의에 이르러 저자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거나 외부세계를 재현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텍스트나 작품에서 나타나는 자아나 주체는 언어의 구성물에 지나지 낳는다. 여기서 저자의 정신이란 이미 존재해 있는 언어나 관습 그리고 기호들이 만나는 일종의 공간에 불과하다. 로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저자의 죽음](The Death of Author)에서 말하듯이 "제도로서의 저자는 이제 사망하였다".[11]

셋째, 텍스트와 독자의 역동적 관계가 한결 더 강조된다.

구조주의는 텍스트 안이나 뒤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진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독자는 중요하지 않고 작품의 구조와 체계가 중요하다. 감정을 지닌 독자는 독서라는 비개성적인 행위 속에서 용해된다. 그가 읽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산출하는 텍스트라기 보다는 글쓰기이다. 텍스트의 의미를 창출해내는 비개성적인 독서행위가 중요하다. 여기서 독서란 글쓰기에 지나지 않는다. 독서란 문학작품을 구성하는 일련의 단어와 구절과 문장에 형식과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구조주의에서 시읽기란 마치 수술대에 환자를 올려놓고 해부하는 의사처럼 시를 완전히 해부하는 것이다. 시에 사용된 소리, 각운, 리듬, 의미 등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담당하는 기능을 결정하기 위하여 음성학적, 문법적, 운율적, 의미론적 분석을 가한다. 그리하여 시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체계를 발견하는데 그친다.

이에 반해서 포스트구조주의는 텍스트와 독자와의 관계를 주요시한다. 독서란 단지 텍스

11) Rolan Barthes, "The Death of Authors", in: [Imag-Music-Text], trans. Styephen Heath (New York: Hill and Wang, 1977). p. 142

트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요소들이나 의미체계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서 양자의 역동적인 관계, 특히 독자의 창조적 관계를 드러낸다. 구조주의는 단지 텍스트 안에 내재된 고정된 의미(meaning)만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에 반해서 포스트구조주의는 의미가 지시하는 의미(significance)를 드러내고자 한다. 여기서 텍스트는 더 이상 닫혀지지 않고 열려있다. 여기서 텍스트의 개방성이 강조된다. 포스트구조주의는 텍스트의 다원적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 포스트구조주의가 강조하는 독서의 창조행위는 극단적인 형태를 띠어 창조적 오독(誤讀)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

네째, 추상적인 체계성과 총체성을 거부한다. 구조주의가 구조의 체계성과 이성이 갖는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데 반해서 포스트구조주의는 체계성이나 총체성에 깊은 회의를 표명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데리다의 해체사상에서 나타난다. 데리다는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플라톤이후 서구철학을 지배해온 로고스중심주의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데리다는 소쉬르의 사상을 세가지로 비판한다. 1) 소쉬르는 문자적 언어인 글이나 텍스트보다는 음성적 언어인 말에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음성중심주의를 신봉하였다. 2) 언어의미의 다원성이나 변화를 전혀 인정치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언어를 공시성에서 보았기 때문에 언어의미를 고정불변한 상태로서만 파악했다. 3) 언어적 부호나 의미는 합리적 화자의 자의식을 통해 인지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언어적 부호나 의미는 비결정적이고 비종결적인 것이기 때문에 화자의 자의식에 의하여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데리다는 소쉬르의 구조주의가 문자로 기록된 글보다는 음성으로된 담론에 특권을 부여하는 입장, 즉 음성 중심주의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데리다는 그의 저서 [문자학에 대하여]에서 이 음성 중심주의는 다름아닌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로고스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권위나 중심적인 힘을 의미한다. 로고스 중심적 사고란 초월적인 신이나 존재와 같은 절대적인 기초나 제일원리에 의존하는 사고체계를 가리킨다.

서구의 형이상학은 영혼/ 육체, 이성/ 감성, 형식/내용, 본질/ 현상, 주체/ 객체, 공시성/ 통시성, 글/스피치, 랑그/ 빠롤/, 시니피에/시니피앙 등 이항대립이나 이분법을 기초나 원리로 하고 있다고 본다. 데리다는 이항대립이나 이분법을 붕괴시키고자 한다. 이항대립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은 겉으로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 두 항목중 어느 하나는 이미 다른 나머지 항목에 내재되어 있다. 데리다에 있어서 해체란 이런 이항대립이나 이분법을 파괴하거나 부정하고자 하는 지평적 작업의 꼬리표이다.

푸코 역시 "메타담론"이나 "거대담론"을 불신한다. 푸코도 전체적인 것보다 부분적인 것, 총체적인 것 보다 파편적인 것, 거대한 것보다 작은 것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담론을 인간의 핵심행위로 파악하면서도 그것을 일반적인 텍스트나 의미의 바다로 보지 않는다. 그는 담론을 권력의지의 산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담론을 역사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지식이라고 보지 않는다.

료타르도 그의 저서 [포스트모던 조건(The Postmodern Condition)에서 거대담론의 위기를 지적하면서 총제적 체계를 비판한다. 그것은 "정신의 변증법, 의미의 해석학, 합리적 주체나 노동주체의 해방, 또는 富의 창조"이다.[12] 료타르는 헤겔의 관념론, 마르크스의 유물론,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 하이데거의 해석학 등은 현대사회에 이르러 그 신빙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이것들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정치와 사회, 문화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총체성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자"고 선언하고 있다.[13]

Ⅵ. 개혁신학적 비판

우리는 이제 이러한 포스트구조주의의 입장을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언어의 지시적 기능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 언어의 바른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언어가 만일 지시하거나 서술하는 기능을 상실한다면 우리의 담론은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 사이의 공감할 수 있는 규범과 이해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대화의 불가능성,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사회의 불가공약성을 말하는 것이 되며 사회는 무정부상황에 빠지게 된다.

개혁신학은 언어의 지시적 기능을 인정한다. 우리는 언어가 이데올로기적 제약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언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언어의 권력

12) J.F. Ly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 Geoff Bennington/Brian Massumi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84), p. XXii

13) J.F. Lytard, "Answering the Question: What Is Postmodernism?", in: [The Postmodern Condition], p. 82.

관계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함으로써 가능한한 순수한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간주체와 자아를 부정할 수 없다. 포스트구조주의는 다양한 언어의 망(網)에 의하여 자아와 주체는 분산되었고 해체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자아와 주체의 상실과 죽음을 말한다.

그렇다고 자아와 주체가 상실된 것이 아니다. 다양한 언어망 속에서 자아와 주체가 제기능을 상실한 것 뿐이다.

자아와 주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써 죄 속에서도 이그러진 모습으로 존재한다. 자아와 주체는 다양한 언어망 속에서 속박되어 있다. 이 포로된 노예상태에서 자아와 주체를 해방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만이 자기 동일성을 상실한 자아와 주체를 다시 자기 존래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셋째, 텍스트의 창조적 세계를 발견하는 것은 좋으나 텍스트의 내재적 구조를 벗어날 때 텍스트가 지닌 본래적 의미를 상실한다.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가 지니는 텍스트 내에 갇혀 있는 폐쇄성을 독자의 창조적 상상력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한다. 언어 밖에 있는 세계성에 대하여 구조주의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포스트구조주의는 텍스트 내재적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포스트구조주의 방법을 성경해석에 적용하게 될 때 텍스트의 내재적 구조보다도 텍스트를 해석하는 자의 창조적 상상력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성경 본문이 말하는 케리그마적 독특성을 도외시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여기에 포스트구조주의 성경해석의 한계가 있다.

네째, 데리다처럼 체계성을 극도로 부정할 때 상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진다.

포스트구조주의가 절대적 권위나 체계성을 거부하고 해체한 후에 남는 것은 극단적인 상대성이다. 그러면 회의주의와 허무주의만이 남게된다. 세계나 역사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극단한 회의주의와 허무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섯째, 데리다가 주장하는 바 과거를 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와 미래와 단절시키는 시도는 있을 수 없다.

진정한 포스트구조주의란 과거와 전통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과

거 속에 있는 현재의 모순과 위기를 치료하고 극복하는 단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진정한 포스트구조주의는 현재의 모순적인 요소들을 과거의 양태들과 자유롭게 연상시킴으로써 현재에 함축되어 있는 은폐된 의미를 발견한다.

개혁주의 정신이란 바로 현재적 상황을 끝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음미를 통하여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를 단절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과거의 보고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끝임없는 비판과 개혁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여기서 정체성이란 교회와 신앙과 사상의 정체성으로서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Ⅶ. 맺음말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가 말하는 추상적 구조나 체계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제기한다. 문화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Levy-Strauss)나 문학이론가 바르트(Roland Barthes)는 모든 인류의 문화구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호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포스트구조주의는 이러한 구조주의가 주장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나 양자는 구분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포스트구조주의 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후자는 개념적으로 전자에 귀속한다.

전자는 좁은 의미로는 문학을 비롯한 예술분야, 또는 해체주의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20세기 후반기의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정신(postmodernity)이라고 말한다. 후자는 철학이나 사회과학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포스트구조주의 특징은 다음이다.

첫째, 언어의 지시적 기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인다.

둘째, 인간주체나 개별적인 자아에 대하여 깊은 회의를 갖는다.

셋째, 텍스트와 독자의 역동적 관계가 한결 더 강조된다.

넷째, 추상적인 체계성과 총체성을 거부한다.

포스트구조주의는 이성주의와 과학주의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데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성과 담론에 대한 지나친 불신은 진리와 보편과 존재에 대한 신념을 상실하게 하여 현대지성으로 하여금 상대주의, 회의주의와 허무주의의 심연에 빠지게 하고 있다.

Abstract

What is the Poststructuralism?

Kim, Yung Han

Poststructualism go always with postmodernism. In many case, both terms are used as synonym. Thereby, the distinction between both is not made.

This essay intends to clarify the distinctiveness of poststrucrualism, uncover the commonness and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poststructualism and postmodernism.

Postmodernism is a more comprehensive concept than poststructualism. The latter belongs, in terms of concept, to the former. The former means in a narrow sense the deconstruction, in a broad sense a time spirit of the late 20th century, i. e. the postmodern spirit. The latter means the postmodern appearance in the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s.

The commonness of both is as follows:

First, It perceives the language as the most essential among all the human acts.

Second, it does not take serious the meaning in the human act.

Third, It has an unhistorical thinking.

The distinctiveness of poststructualism is as follows:

First, it shows a strong distrust toward the referential function of the language.

Second, it has a deep skepsis against the human subject and the individual self.

Third, it put a stress on the dynamic relation between the text and reader.

Forth, it rejects the abstract system and totality.

The critical evaluation of poststructualsim from the reformed theological views is as follows.

First, to deny the referential function of language is to do the right one of human language.

Second, the human self and the ego are not deniable.

Third, it is good to discover the creative world of text. One loses the original meaning of text, when one goes beyond the inward structure of the text.

Forth, one falls into the relativism and nihilism, if one radically denies the system like Derrida.

Poststructualism made, together with postmodernism, a contribution to destroying the castles of rationalism and the scientism. However, its radical distrust toward the reason and discourse caused the loss of the beliefs in the truth, the universal and being, and the led the postmodern intellect to fall into an abyss of skepticism and nihilism.